

# “안 왔으면 평생 후회할 뻔~ 했네”



‘장애인의 날’ 참가자들이 남북이 공동으로 복원하고 있는 금강산 신계사에서 각자의 발원이 담긴 연등을 밝혀, ‘빈 지일등(貧者一燈)’의 정신을 실천했다.

## ‘장애인의 날’ 금강산 나들이 나선 불자 장애인들

오랜이 제정한 제26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불자 장애인들이 민족의 영산 금강산에 오르는 특별한 나들이를 다녀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장애인의 날’에 참가한 불자 장애인과 가족 40명은 4월 18~20일 북한 신계사와 금강산 구룡연, 만물상 등을 밟으며, 남북한이 하나 되기와 장애와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발원했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와 물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금강산 구룡연에 올랐다.

### 장애인, 세상 밖으로 나서다

“너무 설레요. 이렇게 멀리 나들이 가는 것은 난생 처음이거든요. 버스타고 가다가 화장실 가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화장실부터 물어봐도 안 마쳐어요.”

4월 18일 아침 9시 서울 조계사 앞에 모인 불자 장애인들은 가족의 손을 잡고 버스를 오르며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경주, 영주, 제천, 강릉 등지의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구로, 육수, 신길 종합사회복지관 등 12개 복지관의 1~3급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이날의 주인공이었다.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무려 50만 명의 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 시의 불편함 때문에 집밖으로 외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달에 5번 이상 외출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이 날의 외출은 더욱 값진 기회였다.

전날 밤잠을 설쳤을 것이 분명할 열골들이었지만, 강원도 고성 군사분계선을 향하는 7시간 동안 버스 안에서 잠을 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신 참가자들은 함께 여행에 나선 어머니, 부인, 남편, 자신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임동균씨(간질장애 4급·경주시 황성동)는 “정말로 꿈은 이뤄지는 모양”이라며 “다음번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꼭 다시 오자고 하고 싶다”며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았다.

이들이 북쪽 출입국사무소를 넘은 시간은 오후 6시였다. 첫날을 피박 북한으로 넘어가는데 북한 참가자들은 해금강호텔에서 여정을 풀고 내일을 기약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등불 꺼지지 않고 온 누리에 비추길 20일 오전, 드디어 금강산을 본격적으로 관광하는 첫 날이 밝았다. 참가자들은 첫 일정으로 복원 불사가 한창인 신계사부터 찾았다. 아직 단청으로 잠정된 않았지만 묘사채와 대웅전이 들어서서 사격을 갖추기 시작한 역사적인 현장을 두 눈으로 본 참가자들은 연신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참가자들이 일반인의 보폭으로는 스무 걸음 남짓한 거리를 걸어 대웅전에 오르기까지는 30분이 족히 걸렸다. 휠체어가 진입하지 못하는 계단 아래에서부터 장애인을 업고, 안고, 들어 올린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의 목덜미에 땀방울이 맺혔다. 목발을 짚고, 다른 사람의 손과 어깨에 의지해 오른 대웅전.

편마비로 인해 좀처럼 모자지 않는 두 손으로 힘겹게 합장 삼배를 올린 전운연씨(뇌병변 2급·충북 제천시)는 “드디어 신계사 부처님을 뵈게 되니 정말 좋아요”라며 감격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가족화목’ ‘남북통일’ ‘언제나 건강하게’ 등의 기원과 가족이름을 적은 꼬리표를 연등에 걸며 발원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부인의 도움으로 연등을 밝힌 이계문씨(시각장애 1급·서울시 구로구)는 “비록 몸은 떠나라 신계사에 올린 등불은 꺼지지 않고 타올라 북녘의 부처님오신날을 밝히려 하면 좋겠습니니다”라고 말했다.

힘겨운 몸 이끌며 세상 위에 우뚝 섰네 날, 금강산 만물상에 오르기 위해 속수를 나선 참가자들이 탄성을 질렀다. 전날 밤부터 내린 비가 밤새 눈으로 변해 금강산의 일만 이천 봉우리마다 내려앉아있었기 때문이다.

“있어 떨어져 바위가 드러난 금강산을 개골산(峯骨山), 눈을 이고 있는 금강산을 상악산(尙岳山)이라고 부른다는데, 저는 한번만 오고도 두 가지 모습을 다 봤으니 행운아인가

입니다.” 장애인의 몸으로 눈 덮인 산길을 오르기가 쉽지 않을 텐데, 감동칠씨(지체장애 3급·서울시 구로구)는 긍정적으로 답하며 목발을 짚은 손에 힘을 주었다.

직접 금강산에 오르고 싶었던 노옥연씨(뇌병변 2급·서울시 성북구)도 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등산길에 올랐다.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는 누구보다 사할도 많이 찾고 산에도 자주 올랐다는 노씨는 “이곳까지 와서 금강산을 구경하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며 팔을 간곡하게 설득했다. 어머니가 다칠까봐 반대하던 딸은 이윽고 그 손을 꼬옥 잡고 좀더 좁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어느 때는 앞에서 끌고, 어느 때는 뒤에서 밀며 마침내 만물상에 오른 노씨는 서로를 끌어안고 환히 웃었다.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요.”

행사 일정 내내 참가자 옆을 떠나지 않고 동고동락했던 지현 스님(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 이사)은 참가자들의 이런 변화에 대해 누구보다 기뻐했다. “세상과 만나는 기회는 장애인에게 무엇보다도 바꾸기 힘든 소중한 것이지요. 그 때문에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재활의지를 북돋고자 매년 이 행사를 준비해왔습니다. 내년에는 모금을 해서라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북한을 나서는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가슴 속에 희망과 용기를 심고 있었다. 장애인의 날도 어느덧 지나갔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켜진 희망의 등불이 언제까지나 꺼지지 않고 타오르길 기원해본다.

글·서진/금강산=이은비 기자

경주 영주 등 12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 40명의 희망 나들이 불사중인 신계사에서 등 밝히고 남북통일·차별 없는 세상 발원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두 발로 북한 땅을 밟아보고 싶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장애인의 날’ 참가자들이 북한 삼일포 혼들 다리를 건너고 있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기기 개인용 모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107236-5004A호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건강의 기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심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 원칙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칙외선 ‘침’을 맞는 효능으로 속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있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허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편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생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입니다.

###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血복
-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이렛배가 냉하신 분
- ※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 권장
-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원칙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칙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칙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악랄오염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칙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체온까지 42℃의 열을 가온시키는 의료기기입니다.

문의전화 : 덕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일공익활동 상담 합니다.